불교의 孝

효를 강조한 경전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에 인용된 효(孝)관련 경전은 무려 70여경에 이른다. 이들 경전속에서 말하는 효는 주로 부모의 은혜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한 사랑을 적고 있다. 효사상을 강조한 주요 경전을 소개한다.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부처님의 생모 마야부인을 제도 해탈시키기 위해 도리천에서 설한 법문.

▲불설정반왕반열반경=부처님의 부왕인 정반왕이 열반에 들자 부처님이 직접 향로를 들고 장지까지 가셨던 내용.

▲불설보살섭자경=세상에 널리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 어떤 소경부부의 집에 태어나 효행의 모범을 보였다는 전생 이야기.

▲대방편불보은경=부모에게 효도로써 봉양하면서 고행한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대반열반경=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가자들을 위해 4가지 수습법 가운데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효도 봉양하라고 말씀하셨다.

▲기세인본경=8재일날 사천왕과 그 권속들이 세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로써 따르는 지를 살핀다는 내용.

▲십상경=불 법 승 계 정 부모를 공경하는 6가지 물러서거나 나아가는 법.

▲선생경=선생이라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6방에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가르쳤다.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자식이 부모에게 다섯가지 섬기는 다섯가지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다섯 가지 해야 할 일.

▲잡보장경=왕자가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를 구제하는 등의 121조의 인연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는 것과 계를 지키는 것을 권하는 경.

▲관보현보살행법경=다섯가지 참회법 가운데 제2 참회법은 부모를 효도로써 공양하는 것과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

▲관무량수경=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닦는데 효도가 으뜸이라고 설했음.

▲지장보살본원경=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제도하는 내용.

▲불설부모은난보경=부처님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 설하셨다.

▲불설효자경=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을 설하고 부모의 잘못에 대해 선교방편으로 고치게 하는 방법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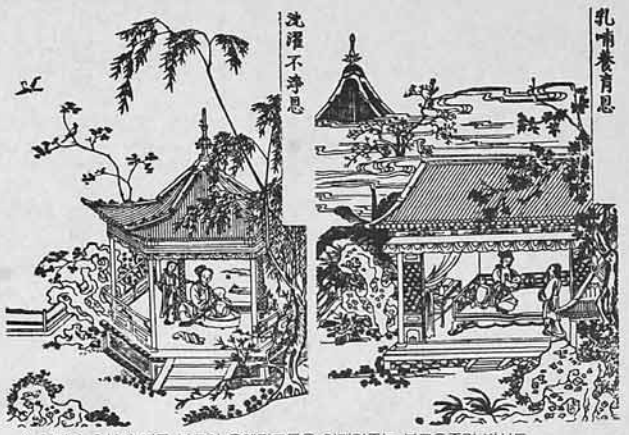
▲부모은중경=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설하고 있다.

▲매의경=부처는 아버지요,법은 어머니이니,부처의 말을 따르고 법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부모의 행이라고 강조.

▲묘법성념처경=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내는 것을 경계.

▲불설제석업비밀성취의궤=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고 당부.

이외에도 부처님은 법망경,옥야경,증일아함경,오분율,오고장구경, 유행경, 육도집경 등의 경전에서 효에 관해 설하고 계신다.



◇ 임태와 출산에 따른 부모의 육체적고통을 일깨워주는 부모은중경 변상도.

해탈·중생구제 더 큰 효

효는 곧 보살의 이타정신 ··· 자비실천이 핵심

우리는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커다란 사건들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다. 못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항상 인간성 상실이니, 도덕의 부재니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윤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모든 행의 근본이 되는 효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효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서술한〈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사찰문화연구원 간)이 출간되어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대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효, 윤리관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제껏 불교는 '자손을 못 낳아 조상의 대를 끊기게 하는 큰 불효를 짓는 종교'라며 효(孝)관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는 유교적 도덕규범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출가는 더 큰 효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는 혈육지정의 효에 집착하지 않고 대승적 중생구원이라는 차원높은 효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효의 범위로 유교는 가족제도라는 울타리 안이 중심이 되지만 불교는 일체 중생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뿐 부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를 강조하셨고 실천하셨다.

부처님은 〈대방편불보은경〉을 통해 "여래는 본래 나고 죽는 동안 일체의 중생이 일찍이 여래의 부모였고 여래 또한 일찍이 중생들의 부모였느니라" "쉬거나 게으름이 없이 부모에게 효도로써 봉양하거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 아뇩다라삼막삼브리를 속히 이룰 수 있었느니라"라고 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불교의 효사상은 연기법에 의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상이고 그 근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효는 마음에서 나오는 효를 중요시하고 있다. 결국 효와 불심(佛心)은 하나이며,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관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의 효는 금생에 국한하지 않고 삼세를 관통하여야 하며, 궁극에는 보살의 이타정신으로 일체중생과 함께 부처를 이루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효의 핵심사상은 보살의 이타정신에 있고, 보살의 이타정신은 곧 자비심이요, 자비심의 원천은 공경심이며, 공명심의 근원은 효순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망경〉에 "효를 이름하여 계(戒)라 한다"고 했다.

결국 단순한 물질적인 봉양에서 벗어나 참해탈을 위한 정신적인 봉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효사상이야말로 이시대에서 되찾아야할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준엽 기자〉

역사속에 숨쉬는 스님 · 불자들의 효

진묵대사는 초막 짓고 어머니 지극히 봉양

진정 · 서산스님 효행 유명 ··· 김대성 부모위해 불국사 창건

이 땅에 실질적인 불교가 처음 전해진 역사적인 사건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아도스님의 효행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원광법사가 화랑도에게 세속오계를 주면서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事親以孝)' 하는등 한국불교는 효행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종교로 맥을 이어왔다.

특히 출가전과 출가이후에까지 효를 실천한 진정법사, 왕으로 계신 부모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출가한 대각국사 의천, 어머니 봉양을 위해 환속했다가 〈법화경〉을 써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다시 수행자가 된 환암 혼수국사, 나이 쉰 여섯에 '부모님께 제사드리는 글'을 써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보인 서산대사 휴정,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절 부근에 초막을 지어 부모님을 공양한 진묵스님, 의천 선사, 일연스님 등 수 많은 스님들의 효행은 불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과 함께 후세에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스님들의 효행을 따라 재가불자들도 세속에서 효의 실천을 으뜸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재가자의 효행으로는 부왕을 위해 감은사와 이견대를 세운 신문왕과 전생과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신라 김대성의 효행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남 곡성 관음사는 심청전의 모태가 되는 효녀 홍장의 효행이 남아있으며 조선 정조임금은 사도세자에 대한 간절한 효성으로 용주사를 창건해 오늘날까지 용주사가 '효의 근본 사찰'로 내려오고 있다.

한편 효에 대한 결정체로 신라 손순의 효행을 들수 있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늘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했다. 손순부부는 생각다 못해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해드리기 위해 아들을 땅에 묻기로 했다. 그러나 땅속에서 석종이 나와 기이한 일이라 하여 돌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후 돌종소리에 임금이 손순내외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나라에서 큰 상을 내렸던 것이다.

◇신년특집 낱말풀이 정답

돼	지	해	■	■	■	주	인	공
■	■	태	아	■	유	지	■	족
생	■	■	미	■	비	■	■	시
불	화	■	타	심	통	■	■	색
■	현	대	불	교	신	문	사	■
■	■	자	■	■	■	수	미	산
사	명	대	사	■	불	보	■	문
천	■	비	구	■	성	살	■	출
왕	생	■	■	■	■	■	게	송

만화

法법 句구 經경

마음의 장
잘 지켜진
마음이
안락을
가져온다

이 함 원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98, 84, 159, 331, 588 - 2번